

가마도 신사 수여소

가마도 신사의 수여소(부적 판매 시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가마도 신사의 부적 등을 판매하는 수여소입니다. 다른 신사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수여소를 현대풍으로 재해석한 건물 디자인은 국제적인 공동 작업을 통해 일본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원더 월' 소속의 가타야마 마사미치 씨가 설계했습니다. 내벽의 열은 분홍빛 대리석은 포르투갈산으로, 테라스의 벤치와 의자는 영국의 디자이너 제스퍼 모리슨 씨가 디자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협업은 아시아 대륙의 입구로 국제 외교의 중심지였던 1300년 전부터 국제 사회와 넓은 관계를 맺어왔던 오랜 세월을 걸친 다자이후의 전통을 전승한 것입니다.

수여소에서는 연애 성취, 순산, 여행 안전 등 각양각색의 부적을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에마(목제 봉납판)에 기도나 소원을 적어 신사의 경내에 걸어두고 신에게 기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천장에 새겨진 벚꽃 문양은 신사의 무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벚꽃 디자인은 다자이후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매화꽃이라는 면에서 대비를 이룹니다.